

課題文① 4年生以下

동생 때문에

새로 산 장난감
동생이 부러뜨렸지 뭐야.
화가 나서
꿀밤 한 대 쳤지.

세계 때린 것도 아닌데
내 동생, 큰 소리로 우는 거야.
엄마가 달려왔고
난 벌을 썼지.
형이면 형 노릇 하라는 엄마 말씀.

장난감은 부러지고
들어올린 두 팔은 아파 오고
씩씩거리며
동생을 노려보았지만
동생은 엄마 뒤에 살짝 숨었어.
그리곤 살짝 웃는 거야.

으으
잘못은 동생이 먼저 했는데
왜 나만 혼이 나야 하는지.

나, 이제부터
동생할꺼야.

弟(妹)のせいで

新しく買ったおもちゃ
弟(妹)がこわしちゃったんだ。
頭に来て
げんこつで1回こづいたんだ。

強くなぐってもいないのに
僕の弟(妹), 大げさに泣くんだ。
お母さんが駆けつけて来て
僕は罰を受けたんだ。
兄さんなら兄さんらしくしなさいというお
母さんの言葉。

おもちゃは壊れるし
上げている両腕は痛くなってくるし
はあはあと息を切らしながら
弟(妹)をにらんだけど
弟(妹)はお母さんの後にずっと隠れた。
そしてこっそり笑うんだ。

う～ん
過ちは弟(妹)が先にしたのに
どうして僕だけ大目玉を食らわなくちゃい
けないんだ。

僕, これから
弟(妹)になる!

課題文② 4年生以下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

소금 장수가 고개를 넘어가다가
굶주린 호랑이와 마주 뿔었습니다.
“호랑이님,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호랑이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소금
장수를 통째로 삼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조금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기름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기름 장수도 한입에 삼켜
버렸습니다.

호랑이 뱃속에서 소금 장수와 기름
장수가 만났습니다.
“나는 기름 장수인데, 당신은
누구요?”
“나는 소금 장수요. 여기서 어떻게
빠져 나가지요?”
“어유, 어두워. 먼저 불이나 켜고
살펴봅시다.”

두 사람은 등잔불을 켜고 빠져 나갈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 때, 호랑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등잔이
엎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아이고, 호랑이
죽네!”
호랑이는 야단이 났습니다.

塩売りと油売り

塩売りが峠を越える時に飢えた虎と出く
わしました。

“虎様, どうか一回だけ見逃してくださ
い。”

虎は聞きもしないで, 塩売りを丸ごと飲み
込んでしまいました。
しかし, 虎は少しもお腹が一杯になりませ
んでした。

しばらくして油売りが現われました。
虎は油売りも一口で飲み込んでしまいま
した。

虎の腹の中で塩売りと油売りが出会いま
した。

“私は油を売る者ですが, あなたは誰です
か?”

“私は塩を売る者です。ここからどうやっ
たら抜け出せますかね?”

“ああ, 暗い。まず火をつけてまわりを調
べてみましょう。”

二人は油皿に火をともしで抜け出す方法
を考えました。

その時, 虎が急にむっくり起きたせいでつ
い油皿を落としてしまいました。

びっくりした虎はびよんぴよんと飛び跳
ねました。

“ああ, 熱い。 ああ, 死ぬ!”

虎は大変な目にあいました。

課題文③ 5年生以上

그래서 좋은 나의 친구야

열심히 숙제할 때
놀자고 찾아온 너.
숙제 좀 미루어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시지만
안 놀아 주면
너는 너무 서운할 거야.
너랑 실컷 놀다가
잠 쏟아지는 밤 숙제를 한다.
그래도 좋은 나의 친구야.

얌전히 공부할 때
말장난 걸어 온 너.
장난 좀 쳐도 선생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모른 척하면
너는 너무 서운할 거야.
너랑 장난치다가
냄새나는 화장실 청소를 한다.
그래도 좋은 나의 친구야.

아빠 말씀 선생님 말씀 까맣게 잊고
피시방 앞을 기웃거릴 때

가자, 공 차려 가자.
내 손을 잡아끄는 너.
네가 밋다가 정말 밋다가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는다.
그래서 좋은 나의 친구야.

だから大好きな私の友

一生懸命に宿題をしている時
遊ぼうと尋ねて来た君。
宿題をちょっと後回しにしても
お母さんは私を愛してくれるが
遊んであげないと
君はとても寂しがるだろう。
君と思いきり遊んで
とても眠たい夜に宿題をする。
それでも大好きな私の友。

おとなしく勉強している時
ひやかして来た君。
いたずらをちょっとしても先生は私を愛
してくれるが
知らん振りをすれば
君はとても寂しがるだろう。
君といたずらをして
匂いがするトイレを掃除する。
それでも大好きな私の友。

お父さんと先生のお話をすっかり忘れて
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の前をしきりにの
ぞく時

行こう, サッカーしに行こう。
私の手を引っばる君。
君が憎らしくて本当に憎らしくて
顔に流れる汗をぬぐう。
だから大好きな私の友。

課題文④ 5年生以上

삼년고개

옛날, 어느 마을에 삼년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진 사람은 삼 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 때문에 삼년고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삼년고개를 넘어가던 할아버지가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나 죽었어!”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멈, 나는 이제 삼 년밖에 못 살아. 삼년고개에서 넘어졌단 말이오. 하필 거기에서 넘어질 게 뭐람.”

할아버지는 걱정을 하다가 그만 병이 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옆집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참, 할아버지 삼년고개로 다시 가서 또 넘어지세요.”

“뭐라고, 또 넘어지라고? 나더러 아예 죽으라는 거냐?”

할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 넘어지면 삼 년은 사시니까, 두 번 넘어지면 육년, 세 번 넘어지면 구 년은 사실 게아니예요?”

할아버지는 소년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 위에서 아예 데굴데굴 굴렀습니다.

“허허, 이제 쉰 번 넘어졌으니 앞으로 백오십 년은 더 살겠군!”

삼년고개에서 데굴데굴 구른 덕분이었는지 할아버지는 정말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三年峠

昔, ある村に三年峠がありました。この峠で転んだ人は3年しか生き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伝説のため三年峠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

ある日, 三年峠を登っていたお爺さんが後にごろりと転んでしまいました。

“やれやれ, 私はもう死ぬだろうな。私は死ぬんだ!”

落ち込んで家に帰って来たお爺さんは

“お婆さん, 私はもう3年しか生きられない。三年峠で転んだんだ。よりによってそこで転ぶとは。”

お爺さんはずっとそのことが気にかかり, ついに病気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このうわさを聞いた隣家の少年がお爺さんを尋ねて来ました。

“お爺さん, 三年峠にもう一度行ってまた転んでください。”

“なんだって? また転べって? 私に完全に死ぬと言っているのか?”

お爺さんはかっとなって怒りました。

“お爺さん, 1回転んだら3年は生きるから, 2回転んだら6年, 3回転んだら9年は生きられるのではないですか?”

お爺さんは少年の言葉がもっともだ考えました。

お爺さんは峠の上からごろごろ転がりました。

“ハハー, もう50回も転んだから, これから150年は生きるだろう!”

三年峠でごろごろ転がったおかげだったのか, お爺さんは本当にいつまでもいつまでも長生きをしたそうです。